

안녕하세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

먼저 대한민국 체육을 책임지시고 체육계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회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여자 컬링팀이자 경북체육회 소속 컬링선수 김은정, 김영미, 김경애, 김선영, 김초희입니다(이하 '선수들').

저희 선수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목표로 오랜 시간 함께 훈련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과 지원으로 컬링종목에서는 아시아 최초의 올림픽 은메달이라는 큰 성과도 달성했습니다. 이제는 평창의 영광을 뒤로 하고, 다음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더 높은 곳에 올라 다시 한 번 국위를 선양하고 빛나게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선수들은 경상북도 컬링팀으로 최선을 다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만 선수들이 과거와 현재에 처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밝히지 못하고 감추었던 사실을 새삼스럽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는 컬링 선수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는 것을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선수들은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님(이하 '교수님')과 두 감독님들(코치진)께서 저희를 성장시켜 주시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교수님과 감독님들이 사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선수들과의 관계도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선수들은 상황이 더 악화되고, 그나마 남아있던 좋은 감정들마저 사라지기 전에,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수들은 이 상황을 개선해 보고자 많은 고민 후 체육회를 이끌어 가시는 대한체육회장님께 저희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해결해 보고자 용기를 내어 말씀드립니다.

저희 선수들은 교수님과 장반석 감독님, 김민정 감독님의 부당한 처우에 오랜 시간 고통 받아 오고 있습니다.

첫째, 저희는 운동을 직업으로 하는 선수입니다.

선수는 대회에 나가서 열심히 훈련한 노력을 확인 받고, 결과를 얻음으로서 보람을 얻어야 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것에 대해 고민하고, 다시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교수님의 체제에서는, 과연 저희가 경북체육회를 대표하는 선수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올림픽 직후 참가한 세계선수권을 제외 하고, 아직까지도 단 하나의 대회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8월에 있었던 2018~2019 시즌 국가대표 선발전도 교수님과 감독님들께서는 애초에 출전하지 않을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감독님들께서는 작년부터 출전하지 않겠다고 언질을 주었고 선수들이 선발전 출전을 포기하게끔 어떠한 훈련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선수들은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지 말라는 지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저희는 교수님과 감독님들께서 경북체육회 컬링팀의 발전과는 상관없이, 대한컬링경기연맹과의 사적인 불화 속에서 우리를 이용하려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슬램이라는 국제 대회는, 컬링에서는 역사가 오래되었고, 그만큼 권위 있는 대회입니다. 그랜드슬램은 6개 정도의 대회가 있고, 각 대회는 모두 세계랭킹 1위부터 15위 안에 드는 팀만 초청을 받아 출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올해 상반기에만 해도 랭킹 7위의 강팀이었습니다. 이 대회는 지속적으로 출전하지 않는다면, 세계 랭킹이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현재 저희 팀은 14위 까지 떨어진 상태고, 이 추세라면 조만간 20위 이하로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이 권위 있는 국제대회에 초청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대회를 나가지 않는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선수들은 현재의 교수님 체제에서 어떠한 사적인 목적을 위해 고의적으로 선수들의 출전을 막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저희 선수들은 올림픽에서 싸웠던 팀들과 대등하게 경기하고 그것을 통해 운동선수로서의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고 더욱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이후 저희 선수들만 제자리에 멈춰서 있는 현재 모습에 비참할 따름입니다.

둘째, 저희를 제대로 훈련시켜주고 이끌어줄 감독단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현재 의성훈련원장인 교수님, 김민정 감독님의 남편이자 교수님의 사위인 장반석

감독님, 김민정 감독님 이렇게 세분이서 경북체육회 소속 컬링팀을 맡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주 오래전부터, 감독님들의 코칭 없이 선수들끼리 훈련을 지속해 왔습니다. 김민정 감독님은 출근을 한 날을 세는 것이 더 쉬울 정도로 훈련장에 나오지 않고, 훈련장에 나온 날에도, 훈련에 대한 어떤 지시도, 코칭도 없습니다. 심지어 국가대표 선발전 때도 저희에게 아무런 말씀 없이, 출장을 가신다는 이유로 대회장에 오지 않은 날도 이틀이나 됩니다.

저희는, 오랜기간 함께 생활하며, 감독님 없이도 열심히 훈련을 해왔고, 외국인 코치들과 함께하며 좋은 성적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교수님과 두 감독님들을 보면, 우리팀을 해체시키려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포지션 변화와, 의도적으로 대회에 출전시키지 않는 점, 선수들을 분리시켜 훈련을 진행하는 점, 그 어떤 설명도 없이 무작정 감독의 지시에 따르라는 강압적인 분위기만 형성하고 있습니다.

훈련뿐만이 아닙니다. 훈련 외적인 부분에서도 저희는 고통 받고 있습니다. 우리팀이 교수님, 감독님들보다 관심을 많이 받는다 생각하셔서, 사생활과 인터뷰를 통제하였습니다. 저희 선수들은 훈련도, 팀워크도 선수들 스스로가 노력해서 만들어졌지만, 최근들어 선수들을 이간질시키는 지시를 하고, 팀워크를 위해 오랜기간 합숙을 했던 저희들을 이제는 불분명한 선수양성을 이유로 숙소마저도 분리해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이에 저희를 기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된 훈련을 할 수 있게 팀을 이끌어줄 진실된 감독단이 필요합니다.

셋째, 선수들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욕설과 폭언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올림픽 전에 자신의 딸인 김민정 감독님을 올림픽에 선수로 출전시키기 위해, 당시 후보였던 김초희 선수를 부상이란 이유로 의도적으로 최종 엔트리에서 제외시키려 하였습니다. 이에 주장인 김은정 선수가 이의를 제기 했고, 1차 선발 일주일 전 교수님께서 김초희 선수를 뺀 나머지 선수들과 김민정 감독님을 불러 선수들을 질책 하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인격모독적인 발언들을 했습니다.

2018년 10월경, 훈련장에 거의 나오지 않는 김민정 감독님에게 김초희 선수가 문제를 제기하자, 김민정 감독님이 교수님에게 얘기를 하였고, 교수님은 욕설을 했습니다. 선수들 앞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훈련장에 있던 모든 선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마치 들으라는 듯 큰 소리였습니다. 전부 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힘들 정도로, 교수님과 감독님들은 평소에도 '시골 출신들은 키워봤자 소용이 없다'는 등 저희가 태어나고 성장한 지역을 폄훼하는 얘기를 자주하셨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에는 사생활까지 통제합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어떤 친구를 만났는지를 항상 물어보고, 타 시도의 선수를 만나면 꾸중을 하십니다. 선수로서 하면 안 될 행동들을 했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일상적인 여가 생활에 있어서도 이유를 알지 못하는 질책을 받아왔습니다.

급기야는 심리 상담사와 선수만 알아야 할 상담 내용을 감독님들이 입수 한 후, 그것을 토대로 선수들을 질책했습니다. 철저히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워야 할 심리 상담 내용이 감독님들에게 들어간 것도 문제지만, 상담사들의 말만 듣고는 그 내용 용만을 토대로 조목조목 따지며 선수들을 질책을 했다는 사실에 선수들은 깊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선수들의 훈련 일정, 대회 일정에 대한 일정공유가 항상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에게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통보하여, 선수들이 일정에 대해 늘 불안해하며 대기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이후 진행 되었던 행사 관련 일정에 대해서도, 사전에 선수들과 협의 없이 이루어지며, 그것들 또한 행사 하루 이틀 전에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김경두 교수님과 감독님들이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시기에,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정에 대한 공유도 제때 받지 못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 한 예로 지난 평창 장애인 올림픽에 김은정 선수가 최종 성화봉송 주자로 선정이 되어 팀에 요청하였으나 감독단에서는 김은정 선수가 성화봉송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대한체육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을 추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선수들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감독단에서 독단적으로 일정이나 선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 왔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넷째, 경북체육회 여자 컬링팀과 컬링훈련장은 한 사람과 그 일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올림픽 당시, 저희 선수들은 개인의 영광 보다는, 저희를 믿고 지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인터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면서, 교수님과 두 감독님들께서는 급기야 경상북도, 체육회, 피터 코치, 저희에게 컬

링을 알려주신 고등학교 은사님에 대한 언급을 금지시켰고, 교수님과 김민정 감독의 공적에 대한 인터뷰를 지시하며, 혹시 다른 내용이 들어가면 꾸중을 하셨습니다. 인터뷰 통제는 올림픽 기간과 올림픽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현재 교수님은, 대한컬링경기연맹으로부터 1년 6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법적 소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반석 감독님은 심문일인 10월 17일 하루전인 16일에 팀원이 법정에서 참석해야 한다는 연락을 하였고, '너희들이 교수님을 도와야 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유도 설명해준 적이 없었고, 무작정 지시를 따르면 된다는 투였습니다. 저희는 사적인 자리에 저희가 이용되는 것이 부담스럽고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그러한 자리는 피해야한단 생각에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를 빌미로 또 어떤 고통을 줄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후 저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관심과 사랑 속에 많은 행사들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많은 행사 섭외로 인해, 다 할 수는 없고 그 가운데 중요한 행사들을 중심으로 진행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참석한 행사들이 팀이나 경상북도 체육회를 위한 어떠한 기준이 있었던 것이 아닌, 교수님과 두 감독님들을 위한 행사에만 참석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교수님이나 두 감독님들이 초대 되지 않는 행사면 감독님들께서 진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2018년 3월 세계선수권 대회 전에 진행된 광고촬영을 제외하고는, 선수들과 어떤 상의도 하나 없고 심지어 매니지먼트사에도 알리지 않고, 교수님과 두 감독님들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 졌습니다. 선수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되었던 월드컵전 광고촬영에서는 자신들의 뜻대로 하기 위해 선수들의 의견은 일절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일정을 잡은 후, 저희들에게는 봉사를 해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정말로 팀을 생각하고, 경상북도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수들을 마치 개인의 소유물로 여기며 이용하려 한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 이유입니다.

또 한 예로 올림픽 직후 후원사인 신세계와의 격려행사 일정을 잡아놓고 감독단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김으로서 팀김과 후원사인 신세계와의 관계를 악화시켰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 후원사인 신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고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림픽 이후 체결된 팀의 매니지먼트 계약에서도, 김경두 교수님과 두 감독님들은 매니지먼트사로부터의 훈련지원금이 있을 것이고, 팀 운영비로 쓰일 수 있다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가 의문을 갖고, 선수 개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럼 훈련비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여쭙보자, 선수들이 원하고 동의한다면 선수별로 나눌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였습니다. 하지만 후에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확인해 보니, 훈련지원금은 원래 선수 각각이 동일한 금액으로 받는 것이고, 훈련비와는 상관이 없는 마케팅 가치에 대한 선수의 개인 수입이며, 단지 그 명칭이 회사 규정에 의해 훈련지원금 으로 되어있고, 그 점을 김경두 교수님과 감독님들에게 전달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를 대변해주실 변호사를 구하면서 까지 이 부분에 저희가 문제 삼지 않았다면, 선수들의 정당한 대우를 선수개인에게 지급하기 보다는 팀의 훈련비 명목으로 전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의심하게 됩니다.

의성 컬링훈련장은 마치 개인의 소유물인 듯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 어떤 훈련도 할 수 없고, 장반석 감독님, 김민정 감독님과 친분이 있으면 쉽게 방문 할 수 있고, 강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개인의 자산인 것처럼 의성훈련장을 사용하고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들도 교수님의 지시에 따라 일반인들에게 강습도 해주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오랜시간 여러 상황들로 인해 이미 감독단(김경두 교수님, 장반석 감독, 김민정 교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선수와 지도자간의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훈련은 무의미 합니다. 선수들중 은퇴를 고려하는 팀원이 있을 정도로 경북체육회 컬링팀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교수님과 장반석 감독님, 김민정 감독님으로 이루어진 체제의 전면적인 교체를 요청 드립니다. 더 높은 목표인 다음 올림픽을 위해, 또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야 할 후배들을 위해 더 체계적인 시스템이 저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호소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과 많은 고민을 하며 신중히 작성하였습니다. 저희가 평창 올림픽에서 좋은 성과를 얻는다면 앞으로는 행복하게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과 희망으로 버텨왔지만,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김경두 교수님께 저희의 생각을 말씀 드려 본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희가 이렇게 성장 한 것이 모두 자신의 덕이라는 식의 정신교육만을 선수들에게 하셨고, 그런 의견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 질책하시는 바람에 선수들은 더욱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경두 교수님, 김민정 장반석 감독님들의 해결책에 선수들이 처한 상황이나 선수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저희는 대화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을 느끼고, 점점 대화하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체육회장님께 정중히 도움을 청합니다. 김경두 교수님과 두 감독님들 아래에서 더 이상 운동하는 것이 저희 선수들에게는 무의미하고, 이 상태로라면, 컬링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을 파악하시고 판단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겪은 상황과 문제점들을 아래에 추가로 적습니다.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선수들이 다 함께 동의하여 작성한 것이고, 어떠한 거짓된 내용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018년 월 일

경북체육회 여자 컬링팀 올림

김은정 (인)

김영미 (인)

김경애 (인)

김선영 (인)

김초희 (인)

팀 사유화	<p>1. 김초희 선수를 김민정 감독으로 교체하려는 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님 가족이 포함된 엔트리로 여자팀 구성원을 변경하려 시도. 국가대표 1차 선발전 당시(2017년) 김초희 선수가 부상을 당해 훈련이 힘들다는 이유로 팀에서 제외시키고 그 자리에 김민정 감독을 넣으려 함. 그러면서 김초희 선수에게는 믹스더블 선발전에 출전할 것을 강요. - 남자 대표팀의 김민찬 선수(김경두 교수 아들)는 2017년 의가사 제대 후 바로 남자 팀에 합류. <p>2. 갑작스런 훈련 중단, 준비 안된 상태에서 국제대회(2017 PACC) 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창 올림픽 선발전 이후 외부에서 의성컬링훈련원에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문제가 일어나자, 김경두 교수를 지켜줘야 한다는 명목 하에 의성컬링훈련원에서의 훈련을 중단. 아이스 훈련 없이 체력 훈련만 2주 하고 국제대회(2017 PACC)출전(이후 태릉, 이천훈련원을 오가며 비효율적으로 훈련) <p>3. 언론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뷰 내용 사전 지시(선수 의견 X) - 특정 언론사(교수님에게 좋은 기사를 써주는 곳)에만 인터뷰 진행하고 김경두 교수님, 김민정 감독님의 역할에 대해서만 언급할 것을 지시 - 올림픽 기간 초기 : 경북체육회, 김경두 교수 , 감독들 외에 다른 분들 언급 금지시킴(피터 코치, 실제 은사인 고등학교체육 선생님 등) - 올림픽 기간 중기 : 경북체육회 언급 금지. 교수님만 언급할 것을 지시 - 올림픽 이후 : 김경두 교수님과 김민정 감독님의 공을 높이 사는 인터뷰를 할 것을 강요 - 항상 김경두 교수님과 감독단이 이뤄냈다는 식의 발언 강요. 선수 개인들의 이야기를 하면 지적하며 금지시킴. - 김경두 교수님과 감독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인터뷰 내용 지적 - 모든 인터뷰는 김민정 감독으로 통일, 문제가 되자, 특정 선수만 지정하여 인터뷰시킴 - 필요한 상황에, 팀이 언론에 김경두 교수, 김민정 감독, 장반석 감독을 언급해주기를 강요(김경두 교수 체소 문제) - 김경두 교수, 감독들이 원하고 필요한 행사에만 참석 지시. 행사의 성격, 참석 여부는 일체 선수들과 상의하지 않음. (김경두 교수님과 김감독님의 업적과 이미지에 도움 되는 행사 주로 참석) - 의성군의 행사는 참석하지 않으려 함. - 감독 개인적인 가족 행사에 선수 참석 강요(사전 공유 없이 무조건 참석할 것을 지시)(감독 아들 유치원 체육대회, 김경두 교수 지인, 제자 컬링 체험에 강습 할 것을 지시) - 선수들의 의견이나 멘트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마치 선수들의 의견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언론을 이용. <p>4. 김경두 교수 재판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 하루 전날 법정에 동행해 줄 것을 요청. 불참하겠다는 선수들
-------	--------------------------------------------------------------------------------------------------------------------------------------------------------------------------------------------------------------------------------------------------------------------------------------------------------------------------------------------------------------------------------------------------------------------------------------------------------------------------------------------------------------------------------------------------------------------------------------------------------------------------------------------------------------------------------------------------------------------------------------------------------------------------------------------------------------------------------------------------------------------------------------------------------------------------------------------------------------------------------------------------------------------------------------------------------------------------------------------------------------------------------------------------------------------------------------------------------------------------------------------------------------------------------------------------------------------------------------------------------------------------------------------------------------------------------------------------------------------------------------------------------------------------------------------------------------------------------------------------------------------------------------------------------------------------------------------------------------------

	<p>의 의견을 무시하고 참석해야 함을 강요</p> <p>5. 2018 대한체육회 대통령상 후보자 신청서 작성 관련 - 대한컬링경기연맹에서 경북여자 컬링팀을 2018년도 체육회 대통령상 후보자로 신청하기위해, 경북컬링팀에 팀킴의 공적사항을 작성하여 연맹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이에 아래와 같이 일방적으로 공적사항을 작성하여 회신하였고, 대한컬링경기연맹에서 수정을 요청하자, 선수와 협의한 사항이라 수정할 수 없음을 통보했다고 함.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선수와 협의한적이 없었음.</p> <p style="text-align: center;">-공적사항 전문-</p> <p>“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최고의 조직력 협동력으로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컬링’이라는 종목을 각인시킨 여자컬링대표팀(경북체육회)은 1995년 한국컬링의 도입기부터 특히 시설건립을 포함한 장기적인 육성프로그램을 경상북도와 김경두의 지도와 지원에 의하여 육성되었습니다.</p> <p>2016-2017 7월 까지 대한컬링경기연맹이 “올림픽 경기력향상 지원단 TF팀”을 운영하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김경두의 지도하에 극복해 나가며 팀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수한 경기력을 발휘하여 아시아 최초의 올림픽 은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경기력 측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물론, 전 국민이 하나 된 응원과 지지를 받고, 전세계에 ‘대한민국’을 크게 알린 국위선양을 하였습니다.“</p> <p>상을 수상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신을 하려고 하는 대한컬링연맹에 위와 같이 공적사항을 제출했다는 사실에 저희 선수들은 매우 당황스러움뿐이었습니다.</p>
<p>감독의 자질</p>	<p>1. 김민정 감독의 훈련 불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부터 아이스 훈련에 불참 (외국인 코치와 훈련 시 가끔 출근 하여 통역 역할만 수행) , 2016년 팀이 대표팀이 된 후, 대한 체육회로부터 근퇴 관련 경고를 받고, 대표팀 훈련일정에 맞춰 출근하는 모습은 보였으나, 훈련에는 참여하지 않음. 외국인 코치와 함께 훈련할 때에만 가끔 통역 역할로 참여. 진천선수촌에 입촌했을 때에만 아이스 훈련 참석. 훈련에 참석할 수 없을 때는 훈련일정을 조절하여 제출. 오전 훈련시간에는 출근하지 않아, 공식 훈련은 모두 오후로만 제출. - 2018년 8월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 확정 된 이후에도, 금요일 하루 출근, 이 외에는 팀원들끼리만 훈련 진행 - 김경두 교수가 일찍 오는 날에만 일찍 출근 - 가족들 사이 훈련, 컬링장 운영 관련 공과 사 구분 안됨. (김민정 감독이 출근 하지 않는것에 대해 김경두 교수님, 교수님 사모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해해주려고 함) - 선수들의 훈련에 일체 관여하지 않음 (선수들의 상황에 맞는 훈련이 아닌, 훈련의 목적에 대한 설명 없이 그저 자신이 시키는 훈련만 할 것을 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회 행사나 대회가 컬링장에 있는 날에는 출근 - 2018 올림픽 이후, 8월~9월 주 1회 정도만 출근. - 외부인 방문 예정이 없을 시 출근 안함 <p>2. 2018 국가대표 선발전 당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 이후, 훈련 일정 부재. 선수들과 상의 없이 자신들 맘대로 일정을 잡고, 잡은 일정의 공유도 없이 무기한 휴식. - 연맹의 행정 문제를 문제 삼으며, 선발전 불참 할 것을 유도 (국가대표 선수를 유지하고 싶은 선수들의 의견 무시) - 국가대표 선발전이 진행중이었던 올해 8월 13일~18일 대회 기간중, 2일 동안 이유를 알 수 없는 사유로 자리를 비웠고, 이는 선수들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대표 선발전에 감독의 부재는 선수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음. <p>3. 2022 베이징 올림픽을 향한 목표 의식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컬링은 종목의 특성상 팀웍이 중요한데 팀 전원이 참여하는 훈련은 진행하지 않고 포지션별로 분산하여 훈련시켰고 포지션별로 새로운 연습생의 지도를 선수들에게 시키는 것은 컬링팀의 일부팀원을 대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됨. (감독은 훈련에 불참) -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선배로서 당연한 것이지만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중요한 시점에 포지션별로 연습생과 훈련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p>4. 감독의 자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이 원하는 포지션으로 완전히 새로운 팀만 구성하려 함 (이 과정에서 선수들을 이간질시키려는 시도). 훈련과정 불참 - 김민정 감독님과 팀과의 소통 부재 (특정 선수와 소통하기만을 원하며 다른 선수들과 소통하려는 의지 없음. 팀 일정에 대한 것은 장감독님이 대신 해주고, 선수들과의 문제에 본인이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고, 상황을 김정두 교수님에게 보고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음.) <p>5. 팀 분위기 의도적 해체 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의 결속력이 더 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훈련분리, 숙소 분리 <p>6. 선수들에게 사전 양해 없이 개인적 스케줄(강연 등)로 훈련 불참</p>
선수 인권	<p>1. 사생활 침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사생활 부분을 사사건건 따지며 지적 - 개인 SNS 금지. (올림픽 이후, 팀 계정만 사용하도록 강요, 정작 팀 계정은 김민정 감독 혼자 관리. 사전 동의 없이 내용 개제) - 사생활을 보고 받고, 지나치게 관여

	<p>2. 김은정 선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 이후 언론에 노출 되는 것을 감독단에서 꺼려함. - 원래 컬링팀은 스킵의 이름을 따서 팀이름을 정하는게 세계적 관행임. - 그런데 스킵의 이름을 따서 ‘김은정 팀’이라고 칭한 기사에 대해 선수들에게 질책하는 등 팀킴이라는 이름의 사용을 금지시키려 함. - 결혼을 이유로 팀에서 제외시키려는 시도. - 스킵과 주장의 역할을 분리하여 팀내 입지를 줄이려 함 - 팀 훈련에 동행하지 못하게 하고, 혼자 훈련을 시킴 <p>3. 욕설 및 폭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2월말~3월 초 올림픽선발전 1차전 이후 김경두 교수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소리를 지르며 선수들에게 폭언을 함 - 2017년 3월초 올림픽 출전선수에 김민정 감독님을 선수로 넣기 위해 김초희 선수를 제외시키려 하자, 스킵인 김은정 선수가 이의제기를 하였음. 이에 김경두 교수님이 선수들과 김민정 감독을 앉혀놓고 “니들이 잘나서 이런 연봉을 주는게 아니다. 우리가 해준만큼 너희가 못하면 병신이다”라는 욕설을 하며 선수들에게 화를 냄. - 2017년 4월 경 김초희 선수에게 “캠코더나 찍으라고 니 연봉주는거 아니다. 돈값을 해라” 고 코치들이 있는 자리에서 폭언 - 2018년 8월 경 김초희 선수에게 “같은팀이라고 너가 언니들이랑 같은 위치라 생각하느냐” 라며 모욕을 줌 - 2018년 10월 초(올림픽 이후) 선수들이 연예인병이 걸렸다고 크게 화내며 폭언을 하고, 정신교육 실시. - 2018년 10월 중순, 훈련장에 나오지 않는 김민정 감독에게 김초희 선수가 왜 김 감독은 훈련에 안나오는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자 김경두 교수가 “X발, 지가 뭔데, 개 뭐 같은년”이라는 폭언과 욕설을 김영미 선수와 함께 있는 방에서 큰소리로 말함.
<p>연맹, 의성군과의 불화 조성</p>	<p>1. 대한 컬링 경기연맹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경두 교수님, 김민정 감독의 개인적인 문제들을 팀으로 확대하여, 의성군과 대한컬링경기연맹으로부터 선수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 선수들을 지켜주기 위해 대한 컬링경기연맹과 싸우는 것이라 하지만, 결국 김경두 교수님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 그리고 대한 컬링경기연맹과 진행중인 소송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연맹과 불화를 조성하고 있다고 생각됨. <p>2. 의성군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성군에서 자신들을 이용만 하려 한다 말하며 의성군 관련 행사에는 불참. - 의성군에서 컬링 관련 지원이 있었지만, 마치 어떤 지원도 없었던 것처럼 폄하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함 - 의성군 환영행사에 불참. 선수들만 참석하고, 감독단은 말없이 불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10월 의성군민상을 위해 의성군에서 연락을 취했지만, 훈련을 이유로 참석할 수 없다고 함. 당시 선수들에게는 아무것도 알리지 않음. 후에 훈련이 없는 날이니, 가고 싶으면 가라는 식으로 통보 - 의성군과의 불화 조장으로 인해, 의성중학교, 고등학교 컬링선수들과의 관계도 악화. 의성과 관련된곳의 의성컬링훈련장 대관에 협조하지 않음. (개인 입맛에 맞는 대관만 골라서 진행) - 김경두 교수님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후배들을 봐주러 온 의성고등학교 졸업생이 컬링장 출입금지 당함.
금전관련 부분	<p>1. 대회상금 수입의 처리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이전에는 상금이 걸려있는 대회에 출전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2015년부터는 상금을 획득할 목적으로 전세계 컬링투어대회에 출전을 많이 하였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음. - 저희 선수들이 기억하기로는 2015년에만 여러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6천만원이상의 상금을 획득했고 그 이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상금을 획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선수들에게 단 한번도 상금을 배분해준 적이 없음. <p>2. 각종행사 거마비, 사례비, 격려금 처리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창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후 저희 선수들은 김경두 교수님과 김민정 감독님의 지시를 받고 여러 축하행사, 시상식, 팬 사인회, 환영식 등에 참석하였음. 하지만 선수들에 대한 거마비, 사례비, 격려금 등이 전달된 것으로 사후에 알게 되었지만, 이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함. <p>3. 비용처리의 불투명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금 등 대외적으로 팀에 들어오는 돈을 김경두 교수님 개인통장을 통해 수령하고 있으며 저희들에게는 팀 운영비로 사용했다고만 알려줌. - 컬링훈련원에 비리가 많다는 말들이 너무 많아, 저희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함. - 어린 선수의 부모님들이 경북컬링협회에서 선수생활을 하려는 것을 꺼려함.